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오늘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 대강절 연속기도회가 24일(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공동체운영위원회 임시회의가 오후 2시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 연령별사랑방 연합찬양모임이 오후 1시30분에 자연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한공협 서울, 경기, 강원 네트워크 모임이 22일(월) 오전 11시 사랑방공동체에서 있습니다.

<공동체 일정 안내>

12월 21일(일) 오후 2시 공동체운영위원회 임시회의
 24일(수) 오후 7시 성탄 전야 예배
 25일(목) 오전 11시 성탄 축하 예배
 25일(목) 오후 3시 종무식
 31일(수) 오후 11시 30분 송구영신예배

2026년 1월

2일(금) 오전 11시 시무식
 2일(금)~3일(토) 2일 오후 3시부터 생활공동체 영성수련기간
 4일(일) 4/4분기 실행위원회 정기회의
 11일(일) 공동체운영위원회 정기회의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이지성(생일) 목사 · 저경하 사모 가정
 무림사랑방 (감사)

강단을 꽃으로 : 김형배 집사 · 오강자 권사 가정 (감사)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51호

2025년 12월 21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은혜 못 값을 줄 알아

함께 산다는 것, 어렵게 느껴져서 도전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지만, 막상 해보니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내가 노력하고 행한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배우고 성장한다고 느낍니다. 굉장한 동기부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검증받고 배웁니다. 좋은 모델들이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배웁니다. 반면교사로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공동체로 산다는 것은 함께 살며,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함을 봅니다. 어렵습니까? 견디는 것을 배웁니다. 무언가 이루고 싶습니까? 기다리는 것을 배웁니다. 무언가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까? 돌아보는 것을 배웁니다. 예수님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절제를 배웁니다.

사랑방공동체에서 공동체적 삶을 배웁니다.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판단은 대부분 잘못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전제해야 할 이유인 듯합니다.

말씀의 깨달음으로, 생각의 나눔 가운데 깨달음을 기준 삼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먼저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마음에 생기를 얻고 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애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하고, 소통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위로하며 마음을 모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신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용신 장로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재훈 목사

찬 송 : 105장, 126장

성 경 : 로마서 5장 1절~4절

말 씬 : 고난 그 유익에 대하여

중보기도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태국, 캄보디아 휴전을 위한 기도>

지난 주 국경분쟁지역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였고 분쟁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경 근처에 살던 80만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서로 한 발 물러서서 다시 휴전을 이루도록 기도합시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공협 네트워크 모임을 위한 기도>

다음 주 방문하시는 서울 경기 강원 네트워크 모임 가운데 좋은 사귄과 교제가 될 수 있고, 한공협을 잘 섬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연속기도회를 위한 기도>

1) 대강절 연속기도회를 통해 개인의 신앙이 안정될 수 있도록


2)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공동체에 속한 연약한 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시다.

<생활공동체 소식 >

대강절 연속 기도회로 공동체 마당과 기도실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 중에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학생회임원들이 1박2일로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손님들이 공동체에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를 비롯해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과 성탄절과 종무식을 지나면 2025년도 마무리가 됩니다. 새롭게 시작될 새해를 기대하며 마무리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12월 센싱더스토리 말씀은 예수님 탄생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활동으로 예수님 탄생이야기를 연극으로 재연해봅니다. 천사가 되어 날개도 달아보고, 마리아가 되어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눕혀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신이나 가만히 기다리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연극을 위해 멧쟁이 선배들 3명이 와서 같이 연극을 해줬습니다. 모두 열심히 연습해서 모두에게 아주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요르단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보냈던 선물과 카드를 요르단 난민분들에게 잘 전했다는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받은 아이들과 가족 모두 너무 기뻐하는 모습에 참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는지 우리 아이들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항상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건강하시고,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2학기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나 생각해보니 많은 곳을 다녀오고, 즐겁게 놀았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지금 아이들을 보면 어느 순간에 몸과 마음이 훅 커진 게 보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행복한 순간도 많지만 하기 싫거나, 놀 때 마음 맞춰 나가는 과정같이 어려운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잘 감당해가며 성장했기에 너무 대견하고, 예뻐합니다. 방학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월요일부터 방학이 시작된 어린이학교입니다. 어린이 친구들은 환상의 날들을 보내겠지만 선생님들은 학부모님들과의 면담으로 보람되지만 몸은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항상 느끼는 거지만 힘들게 면담을 준비한 만큼 부모님들을 대면하는 시간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반성도 하고.. 한 아이를 키우는데 교사와 부모님이 한 마을이 되어 머리를 싸맷니다. 달라진 자녀의 모습에 학교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시는 부모님은 항상 많지만 역으로 학교가 부모님께 감사를 전하는 일이 올해는 유난히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부모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해 보다 많았고 온 몸과 맘으로 학교와 함께 협력해 주셔서 거뜬히 한 해를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모님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더 남은 면담 시간도 학교와 가정이 긴밀히 소통되고 한 사람을 양육함에 더 나은 방법이 찾아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들이 쉽진 않지만 만나는 시간 중에 가정과 학교가 이해를 더해 가는 소중한 시간임을 확인 하며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합니다.

< 교사 : 하경임 >

멧쟁이학교

멧쟁이들의 달콤한 방학기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빈둥거리거나 밤샘 놀이에 빠져있는 멧쟁이들의 모습에 부모님들께선 불안감을 느끼시기도 하지요. 그러면 학부모 면담 때에 멧쟁이들이 직접 작성하였던 방학 계획표를 드리곤 하지요. 곧 방학숙제가 나갈 것이란 말도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부모님과 면담하면서 학생들의 성장과 앞으로의 기대, 그리고 생활 에피소드를 나눌 때마다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교사나 부모님 또한 많은 배움을 얻어,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잡게 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방학 기간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금세 포기하는 멧쟁이는 없겠지요? 스스로 세운 계획과 방학 숙제에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가족 잃고 여전히 공습 두려움... 평화와 회복 주시길

- 전쟁 그치고 평화의 시간 오기 기다리는 우크라이나인들 -

전쟁 발발 4년째에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12월 현재까지도 전투와 공습이 이어지고 있다. (중략) 4년간의 전쟁은 양국의 군인들뿐 아니라 민간인들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언론 매체를 통해 전쟁의 소식을 듣는 우리들에게 저들의 희생은 단지 사망자 몇 명이라는 수치로 다가오지만 가족과 친척, 친구를 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이 터널 끝에서 한줄기 평화와 희망의 빛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보로잔카에 사는 65세의 타치야나는 2022년 전쟁이 막 시작됐을 무렵, 로켓이 집에 떨어져 아들과 며느리가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다. 다행히 손주 두 명은 목숨을 구했지만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어린 손주들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에 빠졌다. 할머니인 타치야나와 손주들은 폭격을 피해 폴란드로 피신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손자만 그곳에 남겨 학업을 이어가게 하고 다시 손녀 밀라나와 우크라이나 보로잔카로 돌아왔다. 할머니와 손녀는 현재 보로잔카에서 모듈형 주택에서 살며 겨울나기를 걱정하며 살고 있다. 모듈형 주택은 모든 조명과 난방이 전기로 작동되는데 타치야나와 손주들은 비싼 전기료 때문에 종종 불을 켜지 못하고, 매일 추위 속에서 지내며 요리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곤 한다.

타치야나는 "폭격으로 아들 부부를 잃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다"며 "건강 문제, 주거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여전하지만 새로운 집도 있고 살림살이도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성탄절에는 더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기도한다."고 소식을 전했다.

35세의 울리아는 2022년 2월 전쟁이 발발했을 때, 동네에 러시아군이 침공해 그녀의 남편을 살해했다. 당시 이들 부부에게는 10개월 된 딸과 10살 된 딸이 있었다. 그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설상가상으로 집이 폭격을 맞아 지붕 등 일부가 파괴됐다. 인명 피해가 없다는 점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나 파괴된 지붕을 수리할 재정적 여유가 없던 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본교단 파송 김대오 선교사가 협력하는 보로잔카교회가 지붕을 수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기저귀, 식료품, 이유식 등을 제공해 겨우겨우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었다. 울리아는 어려울 때 자신의 손을 잡아준 보로잔카교회의 교인이 되었고, 자녀들 또한 어린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울리아는 "우리 집의 생계를 책임지고 집안의 여러 일들을 해주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 우리 가족의 삶은 매우 힘들다. 막내는 자주 아프고 장남은 등이 굽었다"며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의 바람은 전쟁이 곧 끝나는 것, 그리고 더 이상 미사일 폭격이 없는 것, 그리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치야나와 울리아의 소식을 기자에게 전해준 우크라이나 김대오 선교사는 현재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김 선교사는 가족을 잃은 이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 춥고 배고픈 우크라이나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빨리 정의로운 평화를 이뤄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춥고 어둡고 배고픈 우크라이나 땅에 포성은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속히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리고 특히 전쟁으로 인해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과부를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올해 성탄을 맞아 소망하며 기도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25년 12월17일. 한국기독교공보 표현모 기자

축구 그 이상의 의미

한주간의 말씀

“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
<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108 114 / 419

기도 :

성경 : 사무엘상 2장 1~10절

제목 : 한나의 기도

1. 내용: 한나가 기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다 (What)

<문단구분>

1~10절 <한나의 기도>

2. 의미: 하나님께서 삶의 상황을 돌보아주신다 (Why)

1) 어려운 삶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셨다.

2) 기도에서 기쁨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

3)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기도이다.

3. 적용: 기도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자. (How)

1) 1)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2) 세상의 변화를 인정하고 겸손함을 갖추자.

3) 개인의 신앙적 삶이 하나님 나라에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저는 이번에 우리 사랑방공동체에서 진행한 종합교육과정 중 사랑방 축구 교실에 참여했는데,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연령별 사랑방 지체들이 나이와 직분을 떠나 한마음으로 뛰고 웃으며 땀을 흘리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친밀함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누구 하나 빠지려 하지 않고 함께 뛰며 즐기는 모습은 축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공을 차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며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젊은이, 늘푸른, 푸른꿈 사랑방 사이에 미묘한 세대의 벽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축구 모임을 통해 그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짧은 근황 얘기나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젊은이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슛이나 드리블을 가르쳐주며 함께 웃기도 하고, 후배들은 선배들에게 존경과 유머로 화답하며 서로 응원하는 여러 순간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 정신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세대 간의 관계가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선후배 간의 유대도 훨씬 깊어졌습니다. 평소에는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축구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신앙적으로도 교제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분명히 단순하게 운동을 즐기는 것을 넘어, 신앙 안에서 한마음으로 연결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모임이 자주 이어져서 우리 사랑방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단단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 축구 모임이 계속되어,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는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젊은이사랑방 조이서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이사야서 62 : 10-11
27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갈라디아서 2 : 20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84, 120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마태복음 1 : 18-25
126

설교자
미리내사랑방
정재훈 목사

“ 순종의 열매, 임마누엘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331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10(3)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정혜라 한미선 / 봉헌위원 : 윤호중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배

공동기도문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순종의 열매, 임마누엘

요셉의 선택.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의 평판을 지키고 마리아와 아기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최선이 가진 한계였습니다.

천사의 소식. 꿈에 천사가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여라'고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을 때 오해의 시선으로 자신에게는 불명예가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자기 속의 모든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자신의 생각과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어 믿음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침묵의 순종.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에게 닥칠 모든 직접적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믿음의 순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이현숙 집사